

“전두환은 역사의 수치... 누구든 와서 뺄이라도 한 대 치시라”

‘전두환 포획상’ 제작한 파주 정한봄 씨

‘1980년 광주’라는 아픈 역사
침묵하고 방조했던 부채의식이 계기
양형규 작가와 우여곡절 끝 제작
시민 응어리 풀고 마음 위로하고 싶어
광주 5·18 행사 때 시내서 조리 돌림
술씨 악행 반성하고 역사 교훈 됐으면

지난해 12월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었던 ‘전두환 포획상’이 광주지방법원에 나타났다. 27일 전두환이 광주지법에 출석함에 따라 자리를 옮긴 것이다. 동상을 제작한 이는 파주에서 거주중인 정한봄(65)씨. 그는 “지난해 12·12 사태 40년을 맞아 김태동 교수, 류현선 작가와 뜻을 모아 제작했다”고 말했다. 1980년 광주는 아픈 기억을 만들었던 전두환 정권 당시, 전국이 침묵하고 방조했던 그 시절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부채의식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전두환은 저지른 악행에 비해 사회적·법적으로 합당한 응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어요. 한 때 군인이자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 답지 않게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숨어 지내는 추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이와 함께 산다는 게 수치스러웠어요. 이 동상을 통해서라도 못 다 본 분노를 표현하고, 당시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

지요.” 동상을 만들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가장 어려웠던 건 작가를 섭외하는 일이었다. 12월 설치를 목표로 지난해 6월부터 작가 섭외를 시작했으나, 10월이 돼서야 빠르게 동상을 완성할 수 있었다. “5곳의 공방에서 퇴짜를 맞았지요.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한다고 했던 작가들도 일주일쯤 지나면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해로운 일을 담담하게 하는 격정에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6번째로 양형규 작가를 찾아 마침내 동상 제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상은 군사반란을 암시하는 군복을 입고 있고, 소장(보안사령관) 계급장을 달고 있다. 가슴에는 전두환 명찰과 함께 1996년 사형 선고 받은 당시 수인번호(죄수번호)를 달고 있다. 동상은 무릎을 꿇고, 포승줄에 묶인 채 쇠창살에 갇힌 형상이다. 쇠창살은 열 수 있게 돼 있다. 정씨는 “시민의 분노를 마음껏 표현하라는 의미에서 쇠창살 전면을 개방했다. 누구나 와서 뺄이라도 한 대 치실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동상이 광화문 광장에 놓이자, ‘구속상’, ‘치욕상’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모았다. 정씨는 ‘포획상’이라는 이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자취를 감추고 좁혀림 나타나지 않는 전두환을 끌어낸다는 의미다. 지난해 시민은 동상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쏟아냈고, 2주만에 머리 부분이 부서지는 바람에 접촉제로 긴급 수리를 하기도 했다. “석고에 FRP(유리섬유



5·18유족이 27일 광주지법 정문 앞에 설치된 전두환 포획동상을 때리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은 이날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정한봄 씨

강화플라스틱)를 덧씌워 만들었는데, 그리 쉽게 깨지는 재질이 아니다. 소화기나 각목 등으로 내리치는 사람도 있어 생각보다 많이 훼손됐다”고 한다. “산 사람 형상을 만들어 응징한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시민들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게 ‘통렬’했습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응징이었지만, 짜릿한 순간이었지요.” 동상은 지난 3월 4일 광화문에서 철수한 뒤, 한달 동안 보수를 거쳐 광주에 도착했다. 양형규 작가가

인을 암송하는 수레를 만들어 동상을 앉혀 광주 시내에서 ‘조리 돌림’ 순회를 하는 등 5·18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상을 제작한 가장 큰 목적은, 시민의 분노를 전두환 본인이 알게하는 것입니다. 전두환과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두환이 저지른 악행을 반성하고, 우리 후손에게 역사적 교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축협, 광산구에 코로나19 극복 성금 700만원



광주축협(조합장 김호상·왼쪽에서 네번째)은 최근 광산구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축협 제공>

광주장애인복지관협회, 공동모금회에 코로나 성금 500만원



광주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이대만)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전달했다. 성금은 광주지역 장애인복지관 7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24명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뜻을 모아 마련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호남대 대학원 마칠석 씨, 한국제과기능장협회 12대 회장 선출

호남대학교 대학원 외식조리관리학과 마칠석(박사 1학기·가운데) 씨가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제12대 회장에 선출됐다. 마 회장은 한국제과학교에서 최근 진행된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제12대 회장 및 감사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3년이며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의 사업을 총괄해 이끌게 된다. 호남대 조리과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외식조리관리학과 석사를 거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마 회장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제과 프랜차이즈 베이비르와 브레드세븐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제과기능장이기도 한 마 신입회장은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연수과정을 수행했고, (사)대한제과협회 기술지도위원, 2012년 대전세계 조리사대회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제빵월드컵 아시아 대륙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에는 우수숙련기술인에 선정돼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마 신입회장은 스위스·프랑스·독일 등지에서 연수과정을 수행했고, (사)대한제과협회 기술지도위원, 2012년 대전세계 조리사대회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2012년 제빵월드컵 아시아대륙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김일태 전남대 교수, 세계 유명 출판사 통해 영문 경제학 서적 발간

김일태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세계적인 출판사를 통해 영문판 경제학 서적을 출간했다. 김 교수는 세계 유명 전문출판사인 ‘스프링거 네이처’를 통해 모리카 호세교수와 공동 집필한 ‘정보와 위험의 응용경제분석’(원제 Applied Economic Analysis of Information and Risk)을 최근 발간했다. 책은 모두 12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대칭 정보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직면한 경제주체의 최적 선택을 분석하는 응용경제학의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김일태 교수는 “대중서는 아니지만, 관심있는 학자들과 학문 후속세대, 사업이나 조직의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기업과 조직, 기관 전문가 그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응용경제학회 학술공로상(2019)을 수상했고,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한국경제통상학회 회장,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우즈의 추억

미국 골프 매체와 동영상 인터뷰 마이클 조던·알리와 일화 소개

코로나19 사태로 휴업 상태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과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 등 그가 만난 다른 스포츠 스타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우즈는 27일 공개된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와의 동영상 인터뷰에서 1997년 미국프로농구(NBA) 플레이오프가 한창일 때를 회고했다. 당시 조던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는 뉴욕 닉스와 동부 콘퍼런스 결승전을 치르고 있을 때였는데 우즈는 그를 찾아가 며칠 동안 골프를 치며 함께 놀았다고 말했다. 우즈는 “조던은 나보다 승리욕이 강하지만 나도 때때로 승리욕을 발휘할 때가 있다”며 “나는 그의 열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4년 복서 알리와 우연한 만남도 이야기했다. 우즈가 미국 뉴욕주의 시내폭 골프장에서 연습 라운드를 하기 위해 프린트 테스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장난으로) 우즈의 갈비뼈를 쳤다. 우즈는 너무 아파서 그 사람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리였다는 것. 그때 알리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우즈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회고했다. 골프 이외에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로 야구를 꼽은 우즈는 “아버지와 함께 야구를 하면서 다리의 힘을 키웠고, 그것이 골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팀으로는 LA 다저스(야구), LA 레이커스(농구) 등을 꼽았는데 최근에는 크리켓과 럭비 등 미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스포츠에 관심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 알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지원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 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자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과유

- 폼무료지원, 장애인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휴먼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혼가정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

- 1095.1096
- 모집**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블러디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부 010-5522-9700.
-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던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제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

- 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부음**
- ▲원용흥씨 별세, 봉회(기회재정부)-경희(오성정보통신)·나미씨 부친상, 정수진(통계청)·박선영씨 시부상, 노선오씨 병부상=발인 29일(수) 오전 8시 강진영락장례식장 1분향소 061-433-3950.